

# 석유화학, 여수엑스포 유치 “술렁”

## 여수, 5000억원대 거대 프로젝트 준비 ... 2000억원 GS칼텍스가 부담

전남 여수시가 지역 개발사업 명분으로 5000억원대 거대 프로젝트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GS칼텍스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술렁이고 있다.

여수시가 거대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의 상당액을 입주기업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9월12일 여수시와 지역 경제계 인사들에 따르면, 여수시는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사업과 별도로 여수시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세우는 5000억원 수준의 대형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여수시에 건설하는 방안이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 가운데 2000억원은 매출액이 19조원에 달하는 GS칼텍스 여수공장에, 1000억원은 GS칼텍스 여수공장을 제외한 다른 여수단지 입주 석유화학기업들에게 각각 부담시키고, 나머지 2000억원은 정부 또는 시 예산으로 충당하려 한다는 내용이 시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여수시 간부는 최근 GS칼텍스 여수공장 임원을 만나 2000억원을 부담하는 의사를 조심스럽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차원에서 8월 7-10일 GS칼텍스 허동수 회장과 함께 오만을 방문한 오현섭 여수시장은 허동수 회장에게 “지역을 위해 좋은 선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허동수 회장은 “모든 것은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만을 함께 방문한 모 인사는 “오현섭 시장이 지역사업에 대한 협조를 허동수 회장에게 요청했고, 허동수 회장은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사업명과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원로 인사는 “최근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사업을 위해 2000억원은 GS칼텍스에, 1000억원은 GS칼텍스를 제외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부담시킨다는 이야기가 맞느냐고 물어봤더니 시장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지역개발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며 “만약 기업에 많은 돈을 부담시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수단지 입주기업 간부는 “장차사업 위주의 여수 산단 기업체들은 인·허가권을 가진 여수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산단 입주 기업들이 여수박람회 기금과 별도로 지역개발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며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수시는 “특정기업에 지역개발사업 명목으로 돈을 부담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12>